

숨은 그림 찾기 1 - 직선과 곡선 (이윤기)

[A] 돈에 관한 한, 천민 졸부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검박한 삶의 본을 보이는, 희귀한 미덕의 소유자. 하지만 정신의 경우, 어쩐지 단 하나의 잣대로만 세계의 모습을 해석하는 듯한 모노코드 난수표의 소유자. (...) 당시의 내 메모에는, 하 사장에 대한 이런 인물평이 적혀 있다.

'나'가 메모해 둔 하 사장 인물평. 검박함이라는 미덕과 폐쇄적 인식이라는 결함을 나란히 적어 놓았다.

명사형 어구('~의 소유자', '~하는 사람')를 연달아 늘어놓아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나열하는 방식.

39번 정답의 앞부분 근거(④): [A]=인물 평가의 나열. ③의 '비유적 표현으로 관찰 대상의 심리를 묘사'는 함정 — '모노코드 난수표'는 비유지만 묘사되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인식 태도다.

[B] 나는 나름대로 계산을 놓아 보았다. 일 년에 한두 차례씩 서울로 들어와 호텔에서 두어 달씩 묵는 비용의 곱절이면 하 사장 호텔의 방 하나를 일 년쯤 장기 임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다.

서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나'가 손익을 따져 보는 대목. 책을 실어 내려와 서재를 꾸미면 중복 구입의 낭비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39번 정답의 뒷부분 근거(④): [B]=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서술자의 사고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 변화'(③)나 '공간 묘사'(⑤)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하 사장을 천박한 수전노, 구제 불능의 외눈박이로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① 그와의 대화에서 무수한 상처를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약점을 덮어 줄 만한 강점 또한 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 평가와 그것을 덮을 강점을 함께 인정하는 '나'의 이중적 시선. '무수한 상처'는 불편한 감정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40번 ① 근거이자 42번 ①의 발판: '구제 불능의 외눈박이'라는 규정 자체가 '나'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투영한 결과라는 <학습 활동> 연결 지점.

"내가 제일 큰 한식 방을 내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서재를 만들게. (...) 우리 호텔 방 사용료는 자네가 제안한 액수의 3분의 2만 받겠네."

빈 방을 '국가적인 낭비'로 여겨 조건을 불이되 사용료는 오히려 깎아 주는 제안. 낭비를 못 견디는 검박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41번 정답 근거(①): '나'가 하 사장의 강점('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이치를 터득한')이라 여겼던 면모가 드러나는 제안. '자기 이득만 취한다'(③)는 사용료 인하와 어긋난다.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유럽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들이기로 약속하지."

자기 경험만을 근거로 사람을 국적·출신으로 단정하는 하 사장. 앞서 '나'가 지적한 '단 하나의 잣대'가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

42번 정답 근거(②):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중심적 인식의 사례. 선지가 방향을 뒤집어 놓았다.

⑤ "사람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다면서 하 사장을 데리고 나가 한 상 떡 벌어지게 잘 대접한 일도 있는가?" / "네. 하도 깨작거리어서 제가 본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일모 선생의 연쇄적 질문 — 위스키·쇠고기·술·외식까지 '나'의 씹씹이를 하나하나 짚는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화법.

42번 ③ 근거: 검박함을 미덕으로 삼는 하 사장의 입장에서 이런 씹씹이가 자기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 시선의 역전.

⑥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 사장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 쓰는 법을 배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일모 선생의 지적에 대한 '나'의 반발. 여전히 하 사장을 배울 것 없는 사람으로 낮춰 보는 태도가 그대로다.

40번 정답 근거(⑤): 이 말에는 하 사장의 행동에 담긴 진의를 '알게 된 데 따른 당혹감'이 없다. 진의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배우기를 거절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직선이겠는가? 혹시 곡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자네 말마따나 대롱 시각으로 보고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

일모 선생이 던지는 마지막 물음. 좁은 시야로 잘라 본 한 조각을 전체라 믿는 태도를 '직선/곡선'으로 형상화한다.

제목 '직선과 곡선'을 회수하는 대목이자, 대화 상대방에게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남겨 성찰을 유도하는 마무리.

42번 ⑤ 근거: '나'가 자기 식대로만 하 사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자기중심성에 감혀 있었음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려는 말.

작품 정리

갈래	현대소설(단편), 연작 소설
성격	성찰적, 자전적, 비판적
작가	이윤기
시점/화자	1인칭 주인공 시점('나'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서술)
주제	자기 식대로 타인을 재단하는 인식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성찰

특징

- '나'의 메모·계산 등 내면 서술과 인물 간 대화를 교차해 인식의 편향을 드러냄
- 일모 선생의 연쇄적 질문을 통해 '나'의 태도를 스스로 되짚게 만들
- '직선과 곡선', '대롱 시각', '외눈박이' 등 시각 관련 비유로 주제를 형상화함
- '나'가 하 사장을 보는 시선과, 하 사장이 '나'를 보았을 시선의 불균형이 서사의 축이 됨

등장인물

- '나': 작가. 하 사장을 수전노·외눈박이로 규정하지만 그의 검박함은 인정하는 인물. 책이 화장실에 보관된 일로 화가 나 있음
- 하 사장: 경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일모 선생의 애제자. 검소하고 질박하나 하나의 잣대로 세계를 해석함
- 일모 선생: '나'에게 하 사장을 소개해 준 인물. 질문을 통해 '나'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일깨움

구성

- 발단: '나'가 메모에 적어 둔 하 사장 인물평 — 미덕과 결함의 병기
- 전개: 서울 아파트의 서고 문제로 '나'가 호텔 방 장기 임대를 계산해 보고 하 사장에게 제안함
- 위기: 하 사장이 사용료를 깎아 주는 절충안을 내고, '나'는 경주에 책을 옮겨 서재를 꾸밈
- (중략) 미국에서 돌아온 '나'는 책이 낡은 화장실에 보관된 것을 알고 일모 선생을 찾아감
- 절정·결말: 일모 선생의 연쇄적 질문과 '직선과 곡선'의 비유로 '나'의 인식이 되비쳐짐

전체 줄거리

'나'는 경주에서 호텔을 하는 하 사장을 검박하지만 하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 평가해 둔다. 서울 아파트의 서고를 비워 줘야 할 처지가 되자 '나'는 하 사장 호텔의 방을 장기 임대해 서재로 쓰는 방안을 계산해 제안하고, 하 사장은 비수기에 방을 비워 두는 것은 낭비라며 조건을 붙이되 사용료는 3분의 2만 받겠다는 절충안을 내놓는다. '나'는 책을 경주로 옮겨 서재를 꾸민다. 미국에서 출판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자기 책이 낡은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분개해 일모 선생을 찾아가지만, 선생은 오히려 '자네는 하 사장 눈에 어떻게 비쳤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씁쓸이를 하나하나 짚는 질문에 '나'가 반발하자, 선생은 대롱으로 곡선의 한 부분만 보고 직선이라 단정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나'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일깨운다.